



99년 11월 국제상관 주심으로 첫 데뷔했을 박 선수들과 함께

함께 되고, 게다가 해외화 분야가 어느정도 비경쟁이 자리 잡기 시작하자 피해의식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. 해외화는 전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우리고유의 것이죠. 다른 서양국가들에 비해 우월함 원천에서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게 한의학인 겁니다.

인식(認知)을 바꿔 우리 한의학을 수출하게

우리가 의료를 수출국이 될 수 있습니다. 한의학 분야는 그간 정책적 소외대상이었죠. 비리를 생각해야 합니다.



상담 및 문의 : 02)959-6077

"한의학은 전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우리고유의 것입니다. 우리도 의료가 수출국이 될 수 있습니다. 의식의 전환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."

중국은 이미 국가적 차원에서 한의학을 육성해 해에서 일터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 서양에서도 대체의학 열풍이 불고 있고, 우리도 늦지 않았습디다." 이 임장은 인식의 전환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역설한다.

이 임장은 99년 9월부터 경기도 한의대에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다. 그는 현재 WBA 의무분과위원과 한국스포츠클럽의 회장을 맡고 있다. WBA 의무분과위원은 그룹 포함해 단 7명이 불과하지만 유일한 동양인이 한의사는 그 뿐이다. 또 지난 96년부터는 바둑, 태권도, 권상상수 등에서 그의 힘을 시험하고 있다. 요사이 이 임장은 내년에 발표할 논문을 정리하느라 바쁘다. '질과 한의학의 방법을 통한 복서들의 체중감량과 체지방률과 후 근육량 지역회복'이 제목이다. 이 임장은 복싱 외에도 낚시를 정열적으로 즐긴다. 큰 낚시에 관한 여성이들을 위해 단명본으로 순간할 예정이다. 이 임장은 두 가지 미래산업 목표를 세우고 있다.

하나는 WBA세계챔피언 주상을 보는 것. 또 하나는 WBA의무분과위원의 활동을 통해 한의학이 우수상을 세계에 알리는 거다. 이 임장의 침술로 준비한 한국의 복싱선수가 WBA세계챔피언 무대에서 이 임장의 주심으로 치른 경기에서 승리해 이 임장이 지켜보는 복서의 오른팔이 대항의 승리, 한의학의 우수상을 세계민방에 알릴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. **my**

글/김현기 기자·사진/안성규 기자